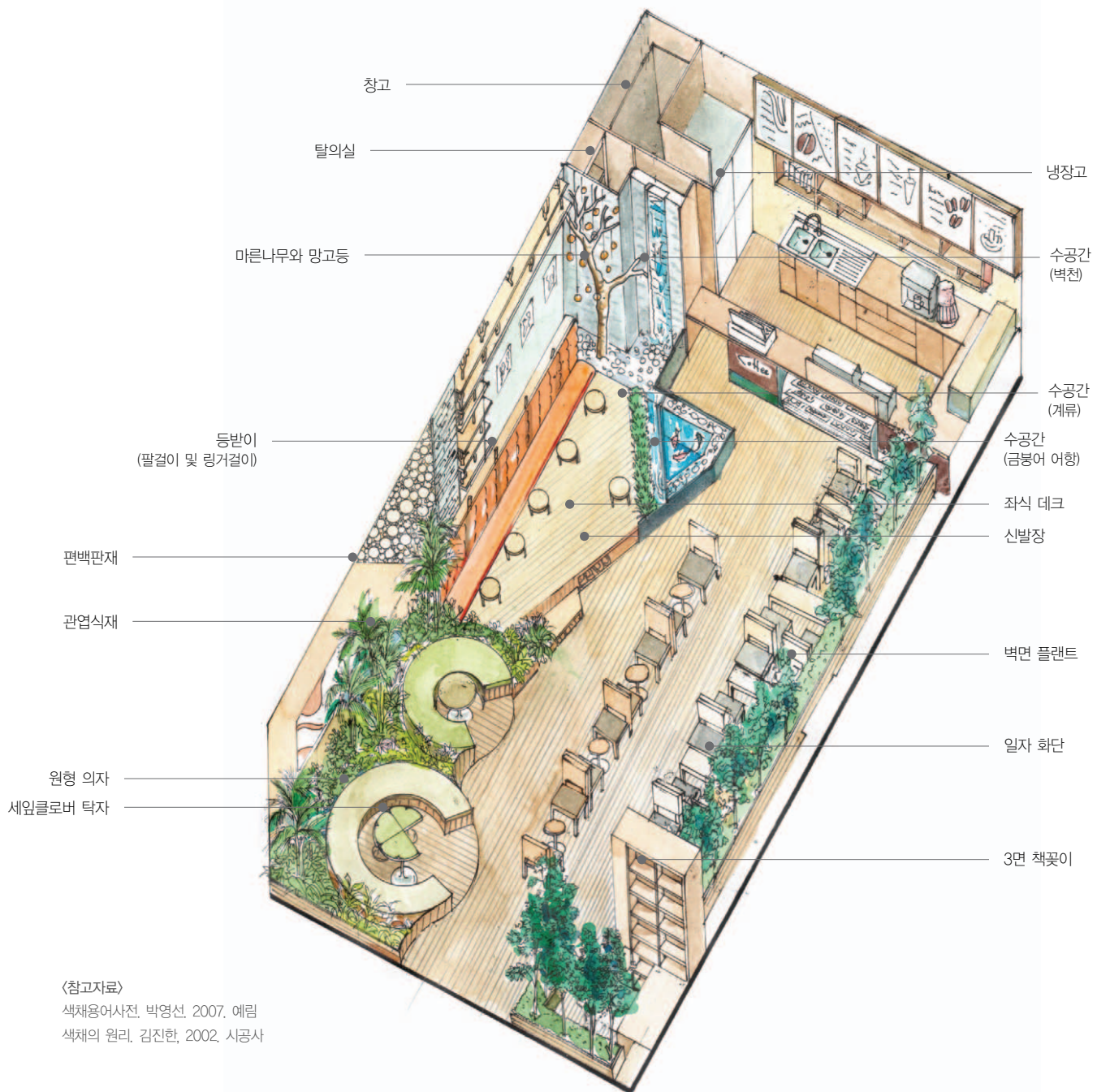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⑩

카페에 적용한 힐링 가든 디자인

병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홍보 공간을 '카페 + 힐링 가든'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Cafe-티(Tea)'에 '움트다'는 의미의 '움(Sprout)'을 더해 '티움 정원'이라 이름 붙여 보았다. 움이란 새싹을 말한다. 초록의 싹이 돌아나듯 기운이나 생각이 새로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병원이란 특수성을 전제로, 환자와 보호자의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디자인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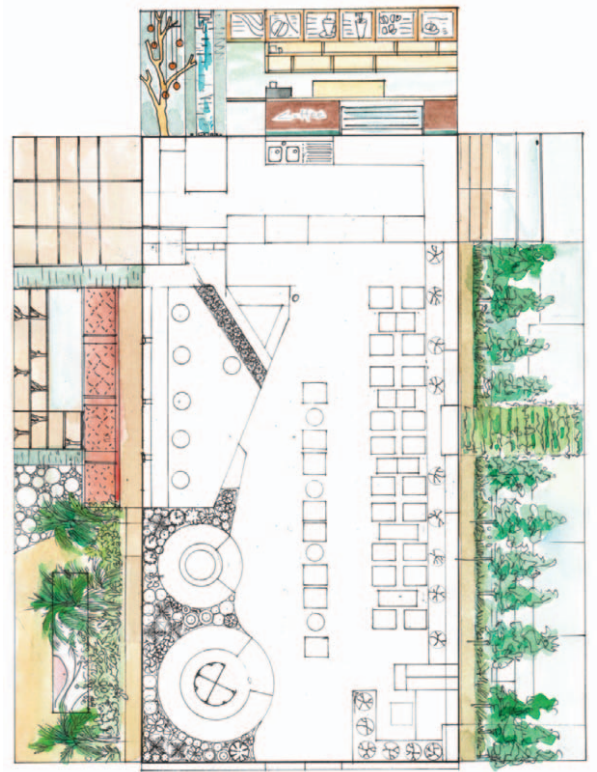
<참고자료>
 색채용어사전, 박영선, 2007, 예림
 색채의 원리, 김진한, 2002, 시공사

디자인 컨셉트

1.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랑방 컨셉트를 도입해 본다.
2. 환자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를 설치할 개방성을 확보한다.
3. 보도의 편안함, 휠체어에 옮겨 앉기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다. 링거병을 걸거나 팔을 걸어둘 설치대를 마련한다.
4. 숲속에 있는 느낌을 주고자 가능한 넓은 식재 공간을 확보한다.
5. 소모임, 대모임 규모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커피 주방과 업소용 냉장고, 탈의실 등 기본적인 카페 집기들을 갖춘다.



실내 공간으로 채광이 좋지 않으며 기존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쓰인 공간이라 사무적인 느낌이 강하다.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딱딱한 입면을 가졌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5가지 장치

1.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

색채의 전달을 통해 정서적, 정취적인 안정을 얻는 방법이다. 이 공간은 자연목 컬러를 기본으로 녹색을 주체 컬러로 하고 주황색을 포인트 색으로 한다. 녹색은 근육과 뼈, 그 밖의 세포막을 재생하는데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긴장을 이완시켜주며, 혈압을 낮추고, 교감신경계에 최면을 거는 작용을 한다. 또한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하수체의 자극을 돕는다. 주황은 태양과 비슷한 빛으로 따뜻하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갖는다.

2. 뮤직 테라피(Music Therapy : 음악 소리, 물소리, 새소리)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인간에게 상당히 이로운 일이다. 이집트 의학 파피루스에는 음악이 여성의 생식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음악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많은 예들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음악치료는 정신질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용되었고 이어서 정서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신체장애, 감각장애, 발달장애 환자들에게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들도 음악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수공간 - 봉어

실험심리학자 준 맥니콜라스 박사는 인간이 동물과 함께 지내면 무조건적인 애정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관찰력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공간은 건조한 공간에 가습기 역할을 한다.

4. 천연소재 - 목재(편백)

식물에 있는 각종 항균성 물질을 이르는 피톤치드(Phytoncide)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병원균과 해충, 곰팡이 등을 없애는 살균 효과를 낸다.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을 벽면과 마루에 시공한다.

5. 식물

실내공기정화 역할을 하는 식물을 플랜트를 이용해 식재한다. 환경호르몬 제거와 유해파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에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일산세계꽃박람회 초청작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